



남성의학 전문의 소영석의
술직·대담한 性

남편들이여 다 안다고 말하지 말라

40대 초반의 남성이 얼굴이 빨개져서 진료실에 들어와 하는 얘기가 결혼 생활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본인은 항상 부부관계에 있어서 만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부인이 매우 힘들게 하는 말이 결혼 후 부부 관계를 하면서 한 번도 흥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충격을 받은 남성은 본인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을 찾아 왔는데 진찰결과 발기장애나 사정장애 등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부부간의 애정 관계에도 이상소견이 없었으나 부인을 검사한 결과 여성 성기능장애는 성욕 장애, 성 흥분 장애, 극치감 장애, 성교통 장애 등이 있다. 성욕 장애는 성욕이 결핍된 성욕 저하증과 성적 접촉을 혐오하는 성 혐오증이 있고, 성 흥분장애는 성적 자극에도 성적 흥분을 이룰 수 없거나 만

족스럽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극치감 장애는 적절한 성적 자극과 흥분에도 극치감에 도달할 수 없거나 지연되는 일이 반복 및 지속되는 상태, 성교통 장애는 성교와 관련 또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성기 통증이 있다. 남성은 성기능 장애가 있으면 성행위가 안 되지만 여성은 장애를 숨기고 얼마든지 성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성기능장애가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여성 성기능장애는 30~50%를 차지할 정도로 남성보다 발생 빈도가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증가하는 진행성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성기능장애는 남성 질환에 비해 관심이 적을 뿐 아니라 여성 자신조차 이를 부끄러워하여 말을 하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요즘 들어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 개방화 및 성

적 만족이 삶의 질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여성 성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 구체적인 진단방식이나 기준, 정확한 진단장비 및 명확한 치료법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여러 가지 원인이 밝혀져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여성의 성기능 장애는 남성의 발기부전이나 조루증처럼 증상이 분명하지 않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한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성 성기능장애의 원인은 남성에 비해 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관여하며 남성과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원인 외에도 당뇨,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 갑각 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이상, 폐경기

나 고령, 약물 복용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성반응은 동일한 성적 자극이라도 인식작용에 따라 강한 자극이 될 수도 있고 혐오스런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환자에게는 심리적 안정 및 치료를 받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며 의사는 환자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여러 분야의 협진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또한 성 상대자의 이해와 치료 참여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흡연, 음주, 습관성 약물 복용, 과격한 운동, 식이요법 등이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조절하며 기질적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원인 물질의 제거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하고 부족한 남성 및 여성 호르몬의 장기간 보충이 효과적이며 심한 정서 장애로 인한 경우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결론에서 성생활은 부부간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성적 만족을 누릴 권리는 남녀 누구에게나 있다. 중요한 것은 부부간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질병을 치료하여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병비뇨기와 원장>

리빙 센스

맛있는 튀김 만들기①

- ◆재료의 물기 제거
재료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튀김 때 기름이 튀 수 있고 기름을 많이 흡수해 눅눅해지므로, 재료를 씻은 후 물기를 빼고 종이타월로 눌러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
◆밀가루는 체에 쳐서 사용한다.
밀가루를 체에 치면 공기 함유량이 많아져 한결 바삭하게 튀겨진다. 또 강력분보다는 박력분을 사용해 냉장고에 차갑게 두었다가 얼음물에 반죽하는 것도 바삭한 튀김을 만든데 좋다.
◆튀김옷은 얇게 입힌다.
튀김옷이 두꺼우면 기름 흡수가 많기 때문에 튀김옷을 얇게 입히는 게 좋다. 튀김 반죽은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똑똑 치듯 가볍게 섞는다. 너무 오래 저으면 밀가루에 끈기가 생겨 튀김이 눅눅해진다.

함께 풀어봅시다 < 29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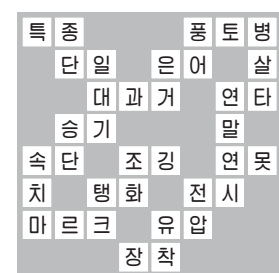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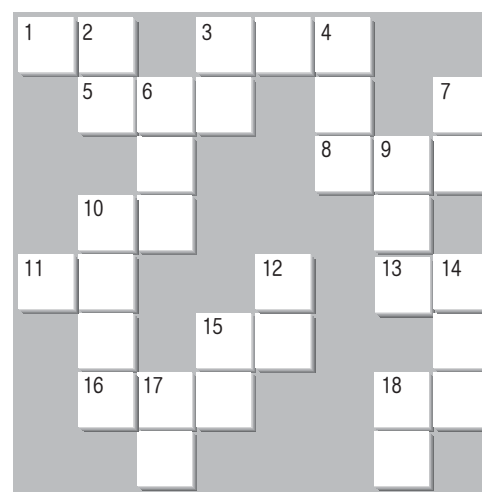
→ 가로 풀이

1.가난해 살기가 어려움. 또는 내용 등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모자라서 텅 빈. ~ 타파, 문화적 ~. 3. 학업이나 실무 등을 배워 익히는 과정에 있는 공민(工民).→수습공. 5.중세 유럽에서 영주가 가신(家臣)에게 봉토를 주고, 그 대신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주종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통치 제도. 왕, 귀족, 교회 등의 영주와 그 지배 하에 있는 농노가 기본 계급. 8.내리누리는 느낌. 빨리 끝내야 한다는 심리적 ~ 때문에 일이 더 안 된다. 10.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함. 이번 일은 ~ 자체가 무리였다. 11.조선의 제3대 임금(이방원). 13.성격이나 말, 행동 등이 보통과 다른 별난 사람. 방랑 시인 김삿갓은 일세를 풍미했던 ~이었다. 15.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 사회적 ~.

16.총탄 등이 몸을 꿰뚫고 나간 상처. 어께에 ~을 입었다. 18.법을 위반해 몰래 사고 파는 입장권이나 탑승권 등 각종 표를 이르는 말.

↓ 세로 풀이

2.체조에 쓰는 기구의 하나. 빛나무, 박달나무 등의 단단한 나무를 깎아서 손잡이 부분은 가늘게 그 반대쪽은 굵게 만들어 몸을 풀 때나 리듬 체조에 쓴다. 3.일정한 작용을 가해 상대방이 지나치게 세력을 퍼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억누름. 집중적인 ~에도 불구하고 역전 골을 넣었다. 4.자동차 등의 타이어 압력. 타이어 ~를 체크해 주세요. 6.말린 포도. 7.겉질을 벗기고 껍질에 꿰어서 말린 감. 9.아마로 무엇을 세게 받아치는 것. 10.일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함. 그녀는 ~ 미소를 띠었다. 12.임금이 될 사람이 예식을 치른 뒤



<함께 풀어봅시다 295회 정답>

- ▲지난주 정답자
김경아·광주시 북구 용봉동
박관재·광주시 서구 금호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월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예책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7일(음 3월 2일 戊寅)

36년생 지나온 세월을 다시한번 점검하라. 48년생 현금 흐름을 철저히 점검하라. 60년생 기류가 담당하다. 마칠 곳을 살펴라. 72년생 안도의 숨을 돌리니 재충전을 충분히 하라. 84년생 대고는 없지만 큰 덕도 없다.
37년생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49년생 경박한 하투나 고쳐수신 있다. 61년생 주변을 살펴 보면 난제가 있다. 73년생 업무상 고민이 생기니 현명하게 처신. 85년생 수하인과 돈거래는 삼가 하라.
38년생 하를 한 번 우려라 보라 부끄럼이 없는지를 살펴라. 50년생 할 일이 많으니 아침부터 서둘러라. 62년생 길사가 계속되거나 손아래 사람은 고풍이 있다. 74년생 계획을 세우고 조용히 추진하라.
39년생 천가 처가 양쪽에 부모님을 살펴라 어른이 안 보인다. 51년생 자녀로 불명하니 대안을 준비하라. 63년생 문서는 꼼꼼히 사명서 천천히 살펴서 확인하라. 75년생 재물도 불안하고 부인 고생이 걱정된다.
40년생 개운치가 없으니 좌측을 살펴라. 52년생 부부 일정이 예상되니 조심하며 보내라. 64년생 유혹수에 속이 타니 조심해야 하리라. 76년생 명제어의 말씀이 생길 수도 있으니 삼사일언해야 한다.
41년생 부부의 주변에서 소꿉이 일어나니 나누면 격정 없다. 53년생 나누면 배가 터지니 모든 일이 즐겁다. 65년생 뜻밖의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77년생 욕심은 내지 말고 차분하게 돌아보며 살리라 정리하라.
42년생 생활이 바빠지니 부부간의 사랑으로 의기투합 쌓아라. 54년생 직장과 남편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66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니 응시하며 살아라. 78년생 옛 것으로 말쑥 나니 대비하며 지내라.
43년생 사랑은 이제부터다. 55년생 가장이 화목하니 부부간의 인연을 서로가 책임이다. 67년생 모든 일이 길사당 연결되며 이 사수도 생기가 들거운 일이다. 79년생 용기 있게 도전해도 두리없이 맞는다.
44년생 沈瀟瀟이 나타나니 남에게 내 것 준다는 마음으로 보내라. 56년생 마지막 고생이 남아 있다. 68년생 계획은 있으나 될 듯 뭉 뭉어진다. 80년생 빈 문서잡고 눈물 날라.
45년생 후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라. 57년생 부하의 협조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니 고맙게 생각하라. 69년생 발걸음은 가벼우나 깨끗한 마무리가 없다. 81년생 어른의 지혜를 빌려라 살 수는 없으리라.
46년생 북이 봄을 만나니 하루가 즐겁구나. 58년생 희망찬 아침이 계획대로 추진하라. 70년생 새로운 문사의 뜻밖의 수일이 발생하니 주의를 살펴라. 82년생 도와줄 사람이 못 본채해 도로워 하지마라.
47년생 대고는 없으나 주변인은 괴롭다. 59년생 순조롭게 진행하니 이웃과 신용을 쌓아라. 71년생 큰 투자는 하지마라. 손실이 걱정되니 내일로 미루라. 83년생 좋은 여성을 만날 수도 준비하고 나가라.

기우회 대항전
기우성 5단이 백 삼로 두어 일찍부터 압박해 들어오자 김희관 5단도 라이벌답게 지지않고 흑 11로 눌러가는 과감한 작전을 들고 나온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뛰어 두는 것이 보통이며 백 2로 걸쳐오면 3으로 받아두어서 충분한 모습이다. 그러나 김희관 5단은 기세에서 밀릴 수 없다는 뜻이 흑 17까지를 선수해 두고 흑 19로 모자를 씌우려는 강공책을 선택했다. 이런 수법은 보기에

과감한 모자 씌우기 2보(11~25)
白 기우성 5단 (오로회)
黑 김희관 5단 (무석회)
백 20으로 불인 것이 탈출의 맥점인데 다음 22로는 먼저 23의 자리를 선수를 해둘 수도 있었다. 이 교환을 생각한 것은 맛을 아낀 것. 이 교환은 일장일단이 있으나 고수들은 대개 결정을 하지 않고 실전과 같이 두기를 좋아한다. 흑 25까지 일단은 흑이 주도권을 잡고있는 장면이다.

바둑 소식
백흥석 "고향서 힘냈어요"
광주 출신인 백흥석 6단이 제19기 현대자동차배 기성전 결승 2국을 승리로 장식했다. 백흥석은 지난 5일 광양 제철소 백운아트홀에서 열린 이 대회 결승에서 박영훈 9단을 상대로 279수 끝에 1집반승을 거뒀다. 백흥석은 첫 판을 내쫓지 않았지만 이날 승리로 결승 전적 1-1의 동률을 만들어 냈다.

Table with 4 columns: English Learning, Korean Learning, Chinese Learning, and Korean Story. Each column contains a lesson topic, examples of text/dialogue, and related information like provider and contact details.